

## 인도경제 전망과 한국 기업\*

Tarun Das

사공일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공일 이사장님과 본인은 호놀룰루의 East-West Center에서 만나고 있다. 본인이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에서 강연하기 위해 한국에 올 것이라고 언급했을 때, 사공일 이사장께서는 고맙게도 오늘 아침 여러분과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본인을 초청하여 주셨다. 본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큰 특전이라 생각한다.

인도의 경제발전사를 간단히 여러분께 서술한 다음 인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인도는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래서 인도는 60년의 독립과, 60년의 민주주의 체제, 다양성이 풍부한 60년의 국가이다.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인도가 기록한 60년의 경제발전이 초기에는 느렸으나 최근에는 아주 좋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47년부터 1991년의 초기 44년간 인도의 GDP 성장률은 연간 약 3%였으며, 인도는 사회주의적 형태의 체제를 추구하였다. 민간부문도 있었지만, 정부의 소유와 지도 아래 정부부문의 확대가 계속되었다. 1991년에 인도는 경제위기를 맞았다. 그래서 인도는 IMF와 세계은행에 협조를 요청하여 단기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도가 1991년에 정책과 경제전략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인도는 정부주도형 경제체제로부터 민간주도형 경제로 이행하였다. 과거에도 인도 내에 민간부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간부문에게 보다 큰 역할이 주어졌다.

1991~2007년은 16년간의 경제개혁과 자유화의 시기였다. 그래서 오늘날 경제개혁과정에서 인도의 연령은 16세이며, 중국은 30세라는 말을 본인은 자주 한다. 인도는 중국을 성장과 세계일류급 인프라건설을 위한 역할모델(role model)이나, 인도가 답습하여야 할 대상기준으로 보고 있다. 1991~1996년의 5년간, 경제자유화가 진척됨에 따라 경쟁이 도입되었다. 처음으로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였고, 국제무역의 문호가 열렸으며, 인도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3%에서 6%로 2배 증가하였다. 모든 사람들과 산업, 그리고 정부가 만족감을 느꼈다. 두려워했던 경제개방이 이루어졌으나 진정으로 우려할 일은 없었다.

---

\* 이 글은 2007년 10월 19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1997~2002년, 두 번째의 5년간이 바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도래했다. 이 기간 동안은 인도의 성장이 둔화되었다. 인도가 위기에 봉착하지는 않았지만 성장률이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한편 인도는 경제를 개방했고, 관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수입정책을 자율화했다.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루어졌고, 인도 업체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그러나 이 5년간 인도에 일어났던 일과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도의 IT산업,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효율성과 능률성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은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독립한지 50년이 지난 1997년경에 인도는 자립할 수 있게 되었고 범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IT산업은 인도의 발전, 성장 및 자유화의 상징이 된 것뿐만 아니라, IT 산업을 쫓아가려는 제조업에게도 자신감을 주었다. 그래서 1997~2002년의 5년 동안 제조업은 규모를 축소하고 엔지니어링, 섬유 및 여타 산업에서 약 50여만 명의 근로자를 방출하는 구조조정을 감행하여 한층 효율적인 산업이 될 수 있었다. 제조업이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고 경영관행을 현대화한 결과, 2002년에 인도의 제조업 부문에는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마지막 부문인 2003~2007년 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인도의 발전 모습이 어떠한가? 제조업은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도는 해외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Shanghai) 근처에 가면 인도의 자동차부품 회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전역에서 인도의 제약회사와 IT회사를 볼 수 있으며, 광업관련 업체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10년 전의 상황이었던 중국에 대한 우려 대신, 오늘날 인도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하여 제조업자로서, 생산자로서, 그리고 투자가로서 중국에 참여하고 있다. 10년 전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과의 무역이 지금은 300억 달러에 이른다. 10년 사이에 30배 증가한 것으로, 인도의 또 다른 무역상대국인 미국과의 무역규모를 곧 상회할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이 급속히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을 능가하리라는 것은 분명 예상될 수 있다.

인도의 제조업은 완전히 개방되어 투자와 무역에 대한 규제나 통제가 더 이상 없으며, 관세율이 꾸준히 인하되고 있다. 한국에 투자한 인도의 Tata사가 최근 영국의 CORUS라는 대규모 철강회사를 인수한 사례와 같이, 지금 인도는 해외에 투자할 뿐 아니라 인도 기업의 인수·합병을 외국 기업에게 허용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Vodafone사는 인도에서 가장 큰 휴대전화회사 중 하나를 180억 달러에 인수했다. 10년 전에는 인도가 개방을 우려했다고 언급했지만, 지금은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 기업들은 해외거주자와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다. 기업경영을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기로 결정되면, 우리는 인도에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을 해외에서 찾는다. 지금 인도는 매우 거대한 민간부문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세계গুল지의 몇몇 항공회사를 실제로 인도 민간부문이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경영진은 독일, 미국, 싱가포르 및 여타 국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Tata그룹을 보자. Tata그룹의 호텔은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각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책임자는 하와이 출신의 미국인인 Raymond Bickson씨이다. 이러한 발전은 새로운 관행이 되고 있다. 인도는 보호주의적인 환경에서 출발했으나 지난 16년간 인도 경제와 산업에 대전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보호주의적 환경 아래서 경쟁력이 없었던 바로 그 초기의 기업가들이 지난 16년 동안에 범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도전과제에 대하여 언급해보고자 한다. 인도가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의 도전은 인프라시설이다. 인도는 중국 모델을 답습하고자 한다고 본인이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인도는 중국의 인프라시설 투자와, 또한 한국의 인프라시설 투자에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 한국을 둘러보면 도처에서 인프라시설, 도로, 지하도, 교량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인도가 원하는 것이다. 이는 거대한 도전적 사업이다. 인도의 인구는 10억이다. 인프라시설의 규모 및 수요가 막대하다. 향후 5년 동안 인도는 인프라시설 발전에 3,50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이 모든 인프라시설 발전에 외국인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이미 싱가포르 해운항만청이 두 개의 인도 항구를 인수하였고, P&O 호주 자회사도 3개의 인도 항구를 인수하였다. 인도는 민간부문 컨소시엄(consortium)에 참여한 외국 기업들과 함께 국제공항을 건설 중이다. 6개의 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는데, Siemens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건설 중인 뱅갈로 국제공항이 그 첫 번째이다. 세계각처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의 고속도로 건설은 세계 최대의 고속도로건설 프로그램인데, 기업수주의 30%가 말레이시아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이 반드시 입찰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상하기 위해 관계 장관이 매달 인도를 방문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입찰경쟁에서 매우 성공적이다. 거의 정부독점이었던 텔레콤 부문이 지금은 민간부문의 인도인이나 다국적기업 소유이다. 가장 큰 기업은 인도의 한 민간기업인데 5천만 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으며, 휴대전화 이용자의 수가 매월 5백만 명 증가하고 있다. 5백만~7백만에 이르는 휴대전화 연결수가 인도의 수요규모이다. 휴대전화 부문을 위한 전송탑 건설프로그램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인프라시설 건설은 거대한 도전, 대규모 지출, 방대한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인도로 모여들고 있다.

두 번째의 주요 도전과제는 농업과 농업지역의 발전이다. 현재 인도에는 6억의 인구가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나, 기여도는 GDP의 20% 미만이다. 따라서 인도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경쟁적인 농업분야를 조성해야 하는 도전을 안고 있다. IT, 텔레콤, TV, 농업 인프라 구축 때문에 인도는 새로운 대전환의 출발이 나타나고 있다. 매년 3천만~4천만의 농업인구가 경제 핵심분야로 흡수되고 있다. 농업종사자의 소득이 1일 1달러도 안 되기 때문에 농업분야가 인도경제의 핵심분야는 아니지만, 수요증가에 보탬이 되면서 기업을 위한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인도 농업의 현대화에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농업분야의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인도가 세계 곡창지대 중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시 말해, 인도가 번창하는 농업과 농촌사회를 가진 식량 잉여국의 하나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세 번째의 도전과제는 사회발전, 건강 및 교육에 관한 것이다. 빈곤과 지난날의 저조한 성장 때문에 정부는 교육과 건강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지 못했다. 오늘날 정부는 건강과 교육을 위한 자원배분을 2~3배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못지않게 정부는 민간부문이 건강보험과 교육을 배려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다. 그래서 민간부문이 경영하는 경영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지닌 민간부문 병원도 있다. 오늘날 미국인과 영국인이 1/10의 비용으로 치료와 수술을 받기위해 인도로 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서 이러한 사례를 실은 기사를 가끔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어느 미국인 부부가 인도의 델리에서 남편의 심장수술을 하고,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에서 건강을 회복하면서 휴가를 보낸 뒤 미국에 귀국했는데, 그 비용이 미국에서 지불되는 비용의 10%였다는 것이다. 인도 의사 모두가 미국에서 의술을 연마했고 미국에서의 진료경험이 있다. 지금 그들이 인도로 귀국하여 의료관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인도 의료분야의 발전을 볼 때, 이 분야는 IT 다음으로 큰 성장을 기록할 분야라는 것이 본인 생각이다.

또한 민간부문은 정부와 함께 기술발전에 참여하고 있다. 9%라는 성장률 때문에 지금 인도는 기술노동력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부문은 기술발전을 위한 범국민운동 출범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인도 기업인들 스스로도,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학업을 마칠 수 없는 빈곤계층 사람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전국적인 운동을 출범시키고 있다. 인도는 에이즈 퇴치에도 민간부문의 참여를 전개하고 있다. Tata그룹의 Ratan Tata 회장이 주도하는 에이즈 퇴치를 위한 인도기업신탁을 통해서, 기업부문은 에이즈에 대한 인식제고나 훈련은 물론 치료센터를 설립하고 에이즈에 감염된 고용인과 가족, 그리고 그 주변 사회구성원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거론되고 있는 일부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더욱

많다. 예컨대, 대규모 IT 회사의 하나인 Wipro사는 초등교육만을 위한 펀드를 설립했는데, 이를 통한 초등교육은 인도의 벽촌에 보급되고 있다. 어느 텔레콤 회사는 천여 곳의 마을에 천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질적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정부 및 기업이 거대한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두드러진 양상을 언급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첫째, 인도는 인구억제에 실패했다. 인도는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인도는 30세 미만의 인구가 5억에 이른다. 그들은 활력, 감동, 열의, 추진력 및 창의력이 풍부한 자산이다. 인도의 청년층 인구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소비자로서 삼성, LG, 현대의 시장이 되고 있다.

둘째, 기술 문제이다. 인도인은 기술과 친숙하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인도인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흡수하며 이전시킬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기술과 매우 친숙하다. 이러한 것이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한 계단씩 전진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기술은 몇 계단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술은 인도의 성장과 발전 속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

셋째, 이미 인도의 IT부문과 의료부문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본인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 서비스분야, 예컨대 서비스산업, 엔지니어링서비스, R&D서비스, 금융서비스, 컨설팅서비스, 회계서비스, 법률서비스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 사람들이 개인 서비스업체를 설립하여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엄청난 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고용확대도 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인도는 WTO 수준의 서비스분야 무역자유화에 민감한데, 그 이유는 인도의 서비스 부문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서비스분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미국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이민과 전문직 종사자의 이동,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인도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을 거론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다. 세계 각국이 법률 및 회계서비스 시장을 인도에게 개방한다고 하면, 인도 역시 그 분야의 시장을 세계에 개방할 용의가 있다.

9%의 성장률이 인도에 가져다준 모든 변화와 앞으로 5~10년간 인도시장에 진입할 6억의 인구를 통해, 인도의 성장모델이 9% 이상의 국면으로 진전할 것이라고 인도인들은 보고 있다. 인도는 여전히 중국을 역할모델로 삼고 있으며 계속 중국으로부터 배울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민주주의제도 때문에, 그리고 법과 정책이 전국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변하든 또는 다른 정당이 집권하든, 변화가 궤도에 진입하면 지속된다. 중요한 것은, 인도가 자체적으로는 연간 10%이상의 속도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도는 외국인에게 투자를 개방하며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Abhyankar 대사께서 재임하셨던 EU에서 비관세장벽을 볼 수 있는데, 인도 역시 비관세장벽 구축에 능숙한 EU로부터 배운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협력파트너를 원하며 한국을 훌륭한 협력파트너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 기업들은 양호하다. POSCO가 인도에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 POSCO가 어려움에 겪고 있는 이유는 거대한 철강공장이 가난한 농부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건설되기 때문이다. 이 가난한 농부와 가족들은 그 지역에서 떠나야만 한다. 지금 인도는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이 없기 때문에 농부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도록 재훈련시켜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가 각 투자프로젝트에 따라 인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거주지를 떠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이해심과 동정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기업들이 이해하고 있다.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 초에는 POSCO가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어제 세계지식포럼(Global Knowledge Forum)에서 POSCO의 간부와 연단에 동석했는데 POSCO는 LG, 현대, 삼성과 함께 대성공의 일화가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한다. 기업의 기회와 경제관계의 범위는 거의 무한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본인의 메시지는, 인도에 수출하되 지금은 투자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는 보다 많은 재원의 배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도에 판매하시라. 인도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다. 인도 수입량의 대부분이 동아시아 지역, 중국, 대만,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에서 수입되는 양은 적다. 일본과의 무역규모는 매우 작다. 한국과의 무역규모는 일본보다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인도에 판매할 수 있다. 투자를 생각하기 전에 무역에서 경험을 얻으시라. 중소기업은 인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대기업의 지원조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일류에 속하는 한국 건설회사들이 그 능력을 인도와 여타 국가에서 보여주고 있다. 한국 건설회사는 인도의 인프라시설 구축에 방대한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을 성사시켜 참여하고 있다. 오늘과 같은 강연 기회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 질의·응답

**[질문]** 인도가 수입대체 시대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화되고, 개방된 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매우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는 IT분야의 세계적 선도자이며, 한국 역시 특히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IT 강국인 것으로 믿고 있다. 아마 한국과 인도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서로 연결시키는 양국 간 상호협력관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한분이 인도를 방문하여 귀국 대통령을 만나, IT기술을 중심으로 한국과 인도가 세계적 지적기반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인도와 한국은 무역뿐만 아니라 국제외교 문제 등을 논의하는 양국 간 연례회동을 가지고 있다. 인도와 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과시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인도는 미국과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다. 군사경계태세란 측면에서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가?

세 번째의 문제는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관한 것이다. ASEAN+3 정상회담 구성 체계에 더하여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했다. 확대된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본래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ASEAN+3에 의해 주창되었던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이 인도 및 호주가 참여한 상태에서 이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훌륭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IT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인도사이에는 완벽한 상호보완성이 있다고 본다. 인도에는 하드웨어 산업이 없다. 한국의 하드웨어 부문이 매우 강하다는 귀하의 언급은 매우 타당하다. 인도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다. 왜 지금 한국과 인도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큰 관심이 없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어떤 소득이 있을 것이다. 인도는 IT하드웨어 구입에 대해 한국보다는 대만과 중국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 생각이며, 기업들 간의 진지한 심층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인도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분야가 매년 번창하고 있고, 기업들은 최소한 30%씩 성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하드웨어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지 쉽게 상상되실 것이다. 하드웨어 부문은 인도와 한국 간의 주도적 사업이 될 수 있다.

인도는 IT 하드웨어 장비를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기업에게는 경쟁의 염려가 없다. 인도 또한 오래전에 공공부문에서 하드웨어 제조에 노력했으나 실패하였으며, 민간부문도 이 분야에는 관심이 없다. 이는 매우 확실한 기회이다. 이러한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며, 정부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지금 양국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연말경에는 완결되도록 협상 중이다. 이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두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 모형으로, 한국-인도 간의 FTA는 이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협정내용이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같은 분야나 협력을 위한 다른 기회도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인도-중국 간의 무역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총리가 설립한 공동실무그룹의 위원이었다. 인도-중국 간 무역확대의 잠재성은 확실히 인정된다. 그러나 인도에는 단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아시다시피 인도의 민간기업은 개인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기업 소유자가 누군지 등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다. 언론매체들이 너무나 적극적이어서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신문이나 TV를 통해 알려진다. 아시아의 가치를 가진 아시아 국가인 인도에서 볼 수 있는 서방세계 모형의 미디어 구조이다. 이와 같은 미디어는 신문 판매고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한다면, 비윤리적인 언론이 되고 있다. 인도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경우 누가 기업을 경영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개인기업인지 정부기업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중국이 인도와 같은 시장경제국가라는 확신이 설 수 있다면, FTA에 대한 협상이나 논의를 시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로 통합된 양국 시장의 규모가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인도와 중국이 공동실무그룹을 통해 상호 무역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FTA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FTA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FTA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FTA 논의가 개시될 경우 신속히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 인도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 많은 중국기업들이 원자재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에 근거한 가격책정의 관행이 아니라는 뜻이다. 아시다시피 인도의 민간부문 기업들은 한국처럼 증권시장에서 주식판매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든지 혹은 은행에서 차입한다. 따라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므로 수익성 있는 가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파산하게 된다. 그래서 인도인이 볼 때는, 중국 기업이 원자재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인도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이렇게 만든 것은 중국이지만, 인도는 중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



되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세 번째 질문인 중국에 대응하는 인도-미국 관계이다. 우선 인도와 미국 사이에는 거의 50여 년 동안 상호신뢰가 없었다. 한국-미국, 또는 일본-미국 간의 관계와는 달리 인도와 미국은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었는데, 그 이유는 냉전으로 말미암아 인도가 소련 측에 가담한 것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5년 사이에 이러한 상황이 변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마지막 기간과 부시 대통령 재임기간을 포함하는 지난 7년 동안, 인도의 여러 정당에서 선출된 총리들의 각기 다른 접근방식에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Vajpayee씨가 힌두 우파 정당인 BJP 아래서 총리였고, 지금은 Indian National Congress당의 Manmohan Singh 박사님이 총리이다.

인도와 미국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지금은 서로 포용하며 많은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미국 기업은 인도의 최대 투자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또한 미국 기업은 인도 최대 규모의 기업이다. 인도-미국 간에는 서로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 미국과의 협력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겨냥한 봉쇄정책은 전혀 없다. 미국과 인도는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을 더욱더 펼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인도와 미국은 중국을 포용하고 싶어 한다. 중국 기업들의 소유 및 관행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인도는 결국 중국과의 FTA에 관심 갖게 된다는 말을 본인은 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싶다. 두 나라는 같은 인접국으로서 아시아 최대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의 FTA 체결은 거대한 혜택을 준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파트너 및 여타 파트너관계 설정이 크게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인은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젊은 인도인이 중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지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누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인도인들이 가르치고 있다.

미국과 인도 사이에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펼치자는 대화 같은 것은 없다. 사실 인도 총리는 본인에게 중국과의 포용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CII(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는 중국 북경 및 상해 두 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인도는 매년 중국에서 무역전시회를 개최하며, 중국의 기업 전문가를 인도로 초청한다. 우리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봉쇄정책 같은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인도는 중국과 함께 더욱 많은 것들을 하기 원한다.

마지막 질문인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관한 것이다.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은 1993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Abhyankar 대사께서 당시 Narashimha Rao 총리 하의 외무부 차관으로서 동방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인도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다. 인도는 지금 싱가포르와 이른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를 체결한 상태이고, ASEAN과의 FTA 협상이 진전된 단계에 있다. 스리랑카와는 FTA를 체결했다. 한국 및 일본과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 협상 중이고, 중국과는 무역증진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양자 간의 관계이지만, 인도경제를 동아시아 경제에 통합시킨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Abhyankar 대사]** Das 고문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도의 동방정책은 1993년에 시작되었으나, 사실상 2000년도에 비로소 작동하게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고자 한다. 최초의 인도-ASEAN 국가수반급 정상회의는 2002년에서야 열렸다. 따라서 이는 매우 최근에 이루어진 정책이다. 이러한 것이 어찌면 모순이기도 한데, 인도가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와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해왔음에도 공식적인 어떤 일을 하는데 이처럼 장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나 2002~2007년 사이에 인도는 아시아지역의 여러 나라와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미 태국 및 싱가포르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말레이시아 및 ASEAN 전체를 한 그룹으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중국, 인도, 한국이 ASEAN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도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동아시아 공동체가 지닌 총체적 추세를 진전시키는 논리적 방법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전체 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인도의 관심은 매우 높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본인은 계속 보고 있으며,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 적어도 금세기의 첫 7년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질문]** 귀하의 탁월하고 감동적인 발표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도는 기회로 가득찬 국가로 보이며 개방되고 자유화하는 국가이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에게 잘 알려져 있는 관계로 중국투자에 대한 우려가 없으나, 아직까지 한국은 인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한국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문화적인 요소인가, 아니면 노동문제인가?

**[답변]** 우선 인도와 중국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도의 민주주의는 지방 마을 단계에까지 퍼져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하위 단위의 정부, 도 단위 정부, 중앙 정부 등 여러 단계의 정부 부서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점을 늦게 발견한 POSCO는 중앙 정부 수준의 부서만 찾아가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하위에서 상위에 이르는 모든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사항이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제도와 조직관행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중국으로 들어가기는 매우 쉽고 나오기는 매우 어려우나, 인도의 경우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지만 한번 들어가면 떠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인도의 투명성과 개방성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인도는 매우 다른 세계이다. 인도에 진입한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몇몇 대규모 수준의 한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거의 맞는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어제 본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장과 최고경영자를 만나, CII는 한국 기업들을 돕기 위해 인도를 잘 아는 한국인을 델리에 상주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문화, 언어, 의사소통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다. 필요한 현지 사정의 정보를 한국어로, 그리고 한국식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필요성을 느낀다. 인도는 중국 및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이처럼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인도에서 편안해지기는 매우 어려우며 본인도 이 점을 이해한다. 한국 기업인과 기업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인도에서 편안해지도록 인도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도와 한국은 서로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인도를 알고 있는 한국 기업은 극소수이며 인도에게도 한국은 매우 생소하다. 인도에서 10여년을 지낸 삼성과 LG도 30여년을 지낸 다른 나라 기업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들은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인도를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도 측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한국의 협조도 필요하다. 전경련 역시 이러한 노력에 관심이 있다. 전경련 회원사들은 인도와의 사업을 원하며, 인도에 어떻게 진출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있다. 인도라는 이상한 동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인도는 별개의 동물이며, 한국에서는 자라지 않는 다른 종류의 나무이다.

**[질문]** 본인의 질문은 두 부문, 특히 전력과 해운 부문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전력부문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UMPP(Ultra Mega Power Plant) 발전소 건설이 착수된다는 시장보고를 매일 접하고 있으며, 우리가 아는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러한 발전소 건설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약 2011~2012년도 중에 인도 전력분야에서 대규모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사실인가?

두 번째 질문은 해운에 관한 것이다. 온 세계가 인도를 차기 해운강국으로 보고 있다. 흑자는 중국 때문이라고도 있지만, 2004년 이래 지난 3년간 해운업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말을 혹시 귀하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략 2009~2010년 기간 중에 인도의 부상으로 해운업의 새로운 무대가 인도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도의 빈약한 시설이 인도 자체의 수요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철광분야에 대해서도, 상반된 정책과 매우 혼란한 시장에 대해 우리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정책 및 시장의 혼선이 철광분야에서 나타나 철강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어제는 인도의 철광 수출쿼타(quota)가 2006년 이래 약 6~7%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철광부문에 대한 인도 정부의 분명한 정책이 무엇인가?

**[답변]** 인도의 인프라시설 분야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정책변화는 전력과 관련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전력부문을 소유·지배하여 소비자들에게 무상 공급하였기 때문이다. 1991년에 인도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소비자가 전력사용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전력부문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가 Manmohan Singh 박사에 의해 이루어질 당시, 인도는 소비자에게 전력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전환기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Andhra Pradesh주나 Hyderabad시를 방문해보면, 민간부문에 속한 5개의 전력사업이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괄목할 발전이다. UMPP 발전소 건설사업도 민간부문 주도로 4~5개의 발전소가 건설될 것이다. 최근 2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입찰이 성사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 앞으로도 두 개의 프로젝트 입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는 분명히 있다. 새로운 UMPP 발전소 건설정책의 차이점은 사전 준비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그것을 성공적인 입찰자에게 건네주어,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POSCO가 겪었던 유사한 문제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토지를 구입하고 모든 사전 준비를 완료함으로써, 투자자는 작업에 곧 착수하여 발전소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종전과 다른 접근방법이다.

인도의 전력수요가 엄청남에도 전력의 10% 이상이 부족하다. 성장률이 9%에서 10%로 상승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UMPP 발전소 프로젝트가 인도의 모든 전력을 공급할 수는 없다. 인도의 지리조건, 즉 동북지방의 언덕과 산으로 인해 인도는 지역단위의 전력발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재생가능한 에너지, 태양에너지, 그리고 풍력에너지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는 청정에너지의 공급원인 핵발전소를 원한다. 인도가 기술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연료와 우라늄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인도는 세계의 문지기인 미국과 거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호주로부터

는 우리나라를, 여타 지역으로부터는 연료,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는 발전소 시설의 공급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는 에너지개발이란 매우 거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청정에너지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본인이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도가 기후변화 문제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광부문에는 두 개의 로비단체가 있는데 수출을 원하는 철광로비와, 철광이 인도 철강산업을 위해 비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철강로비가 있다.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철광수출을 금지시킬 수 없다. 이는 인도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인도 정부가 한국과의 철광수출 사업을 중단시켜 인도의 철강공장에만 공급되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설사 철강로비의 설득으로 정부가 이러한 일을 하려한다 해도, 철광업계가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소할 것이다. 정부가 철광산업에 대한 구매대상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일은 인도에서 전혀 가능치 않다. 인도의 철광 매장량은 풍부하다. 이 철광은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인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확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매일 다른 기사를 읽게 될 것이다. 어떤 날에는 철광수출업자가 철광수출업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보도기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며, 다음날에는 철강산업이 자신의 입장을 보도해준 대가를 지불한다. 어느 쪽이 언론에 더 많이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기사가 실린다. 이것이 오늘날 인도 언론업계의 실상이다. 인도의 정책은 금방 변경될 수 없다. 철광수출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 사안은 해운과 항만에 관한 것이다. 인도 항만시설의 수용능력은 협소하다. 영국의 해운/운송기업인 P&O(Peninsular and Oriental Steam Navigation Company), 싱가포르 항만청, 그리고 여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항만시설을 건설·운영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귀하의 지적이 옳다. 이것이 인도의 큰 걱정거리다. 인도는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적재 및 하역을 위한 항만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운송적체와 지연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악의 항구는 봄베이, 캘커타, 마드라스와 같은 오래된 항구들이다. 새로운 항만은 매우 현대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몇 개의 신항이 인도 서부지역인 구자라트와 캘커타 부근에 건설 중이다. 그러므로 이들 신항이 구항보다 한층 효율적이겠지만 인도의 경우 항만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질문] 인도의 최근 인구조사는 언제였으며 지금 인도의 인구는 얼마인가?

**[답변]**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의 인구조사는 2000년에 이루어졌다. 인도의 인구는 약 12억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만간 중국의 인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질문]** 세계적인 조강도를 가지고 있는 귀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본인은 인도가 북한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한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인도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답변]** 우리는 국외자(局外者)이 때문에, 친구로서 밖에서 본 견해를 말씀드리겠다. 인도는 하나의 한국을 보고 싶어 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베를린장벽이 허물어 졌을 때 독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우려했을 것이다. 동·서독 간의 발전단계가 너무나 달랐다. 그리고 동독의 짐을 나누어져야 했던 서독은 대규모의 재원고갈이 있었다. 만약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국도 같은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독일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어 하고, 독일의 경험을 교훈삼아 통일 전략의 일환으로 미리 준비하고 싶을 것이다.

인도와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인도는 매년 북한에 약간의 쌀을 제공하고 있으나, 북한이 핵무기를 취득한 방법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선 중국이 핵무기를 파키스탄에 제공했고, 파키스탄은 이를 북한에 제공했다. 인도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도는 남북한 간의 대화가 잘 되기를 기원한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이다. 본인이 인도 정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Abhyankar 대사께서 이 지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더욱 소상히 아실 것이다. 그러나 문외한으로서 본인은 통일된 하나의 국가와 경제를 보고 싶다.

본인은 장차 남아시아연합국이 출범하기를 희망한다. 하나의 국가로는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7개국으로 구성된 남아시아연합국은 가능할 것이다. 연합국의 수도는 콜롬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는 소규모 국가에 있어야 할 것이므로 델리를 수도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합국은 자유경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자유무역 체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계가 지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Abhyankar 대사]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NAM) 회원국으로서의 인도와 북한은 다른 종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NAM의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약화된 관계로, 각 회원국들이 각자 다른 아젠다(agenda)를 가짐으로써 NAM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대체적인 NAM의 관심이 대체로 정치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이는 NAM의 모든 회원국, 즉 개도국의 관심사이다. NAM에는 인도, 브라질 및 남아프리카 등의 급속도로 성장하는 국가군이 있으며 북한처럼 그렇지 않은 국가군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언급하고자 하는 점은 NAM의 측면에서 보는 인도와 북한 간의 관계는 사실상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는 북한의 핵무기 확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Das 고문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핵무기 및 여타 핵물질이 중국에서 파키스탄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른바 '칸 네트워크(Khan network)'를 통해 이란과 북한에까지 파키스탄의 핵무기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도에게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우선 핵무기 확산이란 측면 때문이며, 인도 인접국 안보에 대한 위협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인도가 모종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핵무장보다는 오히려 핵무기 확산이 제거되기 바라고 있다. 물론 인도는 남북회담을 지지하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통일을 지지한다.

인도는 여러 회담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미국의 각 행정부에 따라 상이한 기복이 있음을 보아왔다. 1990년대 말의 미국 민주당 행정부에 시절 윌리엄 페리 (William Perry) 대표가 지금의 제안을 사실상 제안했던 것으로 본인은 기억한다. 비외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것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인도는 지금 남북한 회담에 아무런 기여도 못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용히 노력해왔다. 또한 인도는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인도는 정기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쌀과 의약품 지원 요구를 받고 있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지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도는 북한체제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가 남북회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평화유지라는 일반적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다.